■ 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9-73.
http://doi.org/10.17948/kcs.2021..91.49

【특집: 사전 편찬의 역사성과 특수성】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특수 사전 현황 분석*

도원영(都媛鈴)**

목 차

1. 머리말
2.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참조 사전의 성격과 유형
3.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참조 사전의 현황과 특징
4.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문학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문학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세계의 독자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번역가를 양성하고 번역 활동을 지원하는 일만큼 번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문학 번역가들이 활용할 만한 사전의 현황을 살피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문학 번역용 참조 사전의 사전학적 성격을 제시하고 한국문학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7-KFR-1230008).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관한 사전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문학어 사전, 작품 사전, 작가 사전, 문학 용어 사전, 상징 사전, 이언어/다언어 참조 사전으로 구분하고 출간 현황과 사전의 특징,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사전 기획과 편찬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한국문학 번역, 특수 사전, 문학 번역용 사전, 소설어 사전, 시어 사전, 문학용어 사전, 상징 사전.

1. 머리말

번역은 출발어를 도착어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는 것은 특정 언어로 쓰인 작품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지만, 문학이라는 텍스트의 성격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실현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학 번역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존재하는바, 출발어의 어휘나 구문, 표현 등에 비중을 두고 이를 최대한 옮기려는 직역 중심의 방법을 중시하는 입장과 도착어의 자연스러움, 도착어 독자의 가독성을 중시하는 의역 중심의 방법을 중시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반된 관점이 교차하는 지점은 되도록 출발 텍스트의 모든 것을 그대로 옮겨주는 데에 있다.[1] 문학 번역은 번역가가 문학 텍스트 속에 담긴 표면적 의미부터 그 심미적 의미까지 도착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은 번역가에게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문학이 해외로 널리 진출하고 있으며 국외 독자층도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문학의 번역과 해외 교류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 읽는 한국문학을 위한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문학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세계의 독자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 고급 번역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1) 김윤진, 「문학 번역의 방법론—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문학 번역의 이해』, 북스토리, 2007, 11면.

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번역자를 위한 도구의 개발 및 자료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그 성과가 미미하다. 한국문학이 가진 정서와 사상을 세계인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제는 한국문학 번역가를 위한 사전과 같은 기반 자료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일이 필요한 때이다.[2)]

그간 문학 번역과 관련하여서는 사전학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번역학에서도 한국문학의 번역과 사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쟁점보다는 외국문학을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비평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연구가 학계에 발표된 바 있다.[3)] 이는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데에 좀더 특수한 사전이 필요한 인식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국문학을 온전히 번역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 속에 쓰인 어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표현을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적・시대적 배경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데 필요한 사전의 성격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출간된 한국문학에 관한 사전,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의 편찬 경향과 사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4)]

이 연구에서는 범용의 언어사전, 외국어 학습사전, 백과사전을 제외하고 한국문학 번역에 도움이 되는 특수 사전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

2) 도원영 외(2019)에서는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해 온 한국인 및 외국인 번역가들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 한국문화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 문학용어를 모어로 대역해 주는 사전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도원영 외, 『한국문학 번역사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학번역원, 2019.

3) 김운찬은 문학 작품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언어사전만이 아니라 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 줄 백과사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학 텍스트를 정확히 해석해내야 다른 언어로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외적 정보를 포괄한 백과사전이 번역가에게는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송승철은 영미 문학 비평을 위해 출간된 국내 비평용어사전 편찬의 흐름을 살폈다. 각 사전이 가진 장점과 특징, 한계를 지적하면서 문학 비평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사전의 번역과 편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운찬, 「번역과 백과사전」, 『이탈리아어문학』 16,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5; 송승철, 「비평용어사전 편찬과 번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과 밖』 10, 영미문학연구회, 2001. 안인경은 독일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독문학 용어 번역에 대해 다루었다. 안인경. 「독문학 용어 번역과 용어 사전」, 『번역연구』 3, 한독문학번역연구소, 1995.

4) 이 연구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모든 사전을 총칭할 때 '문학 사전'으로 이른다. 작품, 작가, 문학 용어, 문학 속의 표현 등을 표제어로 제시한 다양한 종류의 사전은 문학에 관한 사전으로 볼 수 있다.

는 한국문학 번역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전의 성격을 밝히고 유형을 나눈 뒤에 3장에서는 문학 번역용 참조 사전의 유형별로 편찬 경향을 살피고, 주요 사전에 대해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새로운 문학 사전의 기획과 편찬 과정에서 수용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2.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참조 사전의 성격과 유형

1) 문학 번역용 참조 사전의 성격

기본적으로 사전은 참조 텍스트이다. 이용자는 자신이 궁금히 여기는 단어의 의미나 용법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한 표제어를 찾는다. 문학작품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번역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사전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사전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선 문학 번역을 위한 사전은 이용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범용 사전이 아니라 특수 목적용 사전이다. 홍종선 외(2009)[5]에서는 특수 사전을 언어의 특수 분야나, 교육, 학술, 전공, 직업적 목적 등의 전문적 쓰임을 고려하여 만든 사전이라고 정의하고, 학술어 사전, 직업어 사전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술어를 이해하기 위한 문학 용어 사전, 상징 사전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문학 번역을 위한 사전은 사전의 이용자를 고려할 때 문학 작품의 전문 번역가, 문학 번역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 그리고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참조하는 문학 애호가를 위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전은 범용의 사전에서 볼 수 없는 작가, 작품, 작품 속 표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문학 번역을 위한 사전은 사전을 구성하는 언어로 볼 때 일언어 사전, 이언어 사전, 다언어 사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번역이란 출

5) 홍종선 외, 『국어사전학개론』, 지식과 교양, 2009.

발어를 도착어로 기술하는 과정이다.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어 표제어를 한국어로 풀이한 사전은 외국인 번역가에게 수준 높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요구한다.[6] 이언어 사전의 경우 한국어 표제어를 외국어로 풀이한 사전은 외국인에게는 L2-L1형 사전으로서 이해용 사전의 역할을 한다.[7] 반면 한국인 번역가에게는 표현용 사전의 역할을 한다. 반대로 외국어 표제어를 한국어로 기술한 사전은 한국인 번역자에게는 L2-L1형 사전으로서 이해용 사전의 역할을 한다. 반면 외국인 번역가에게는 표현용 사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언어 사전도 가능하다. 한국어 표제어에 대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의 대역어를 제시한다면 다양한 도착어 번역가에게 도움이 된다.

넷째,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관용구나 속담, 상징 표현을 주된 표제어로 삼아 내포적 의미를 기술한 사전이 있다. 이러한 사전은 특정 부류나 특정한 미시 구조를 선별해서 표제어로 삼은 부문 사전의 성격을 가진다.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데 참조하는 사전은 위와 같이 특수 사전의 성격을 가진다.[8] 문학 작품을 번역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전이며, 출발어로부터 도착어로의 전환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사전이다. 또한 외국인 번역가를 위해 두 개 이상의 언어로 표제어화되고 기술된다.

2) 문학 번역을 위한 특수 사전의 유형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쓰인 어휘나 표현, 작가, 작품, 문학 용어 등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번역자에게도

---

6) 도원영 외(2019)에서 한국문학의 외국인 번역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모어 화자 수준으로 이해하고 표현하지만, 예비 번역가의 경우에는 한국어 일언어 사전 외 다양한 이언어 참조 사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원영 외, 앞의 책, 2019.

7) 반면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외국어 대응어를 제시한 경우는 L2 이용자에게는 표현용 사전의 역할을 한다. 사전은 풀이 방식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8) 문학 번역용 사전은 특수 사전의 범주 안에서 명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문학 번역이란 의미적·화용적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화용적 맥락까지 섬세하게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문화적 맥락, 역사적 배경 등을 번역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사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이다.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도움이 되는 문학 사전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문학어 사전이다. 이는 문학 텍스트 속에 작가가 사용한 어휘를 선정하여 수록한 사전이다. 한국문학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편의 시어 사전, 소설어 사전이 출간된 바 있다.

두 번째는 문학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작품 사전이다. 시, 소설, 희곡 등의 주제와 줄거리, 작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문학사적 의의 등을 알려 준다.

세 번째는 문학 작품을 집필한 작가에 대한 사전이다. 시인,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를 수록하고 생몰 연대, 성장 과정, 작품 활동 배경과 작품 등을 소개한다.

네 번째는 문학에 대한 메타적 이해를 도모하는 문학 용어 사전이다. 비평적 대상으로서 문학을 논할 때 철학, 심리학 등 인문학적, 사회학적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풀이해 주는 사전이다.

다섯 번째는 상징 사전과 같은 특수 사전이다. 한국문학, 나아가 한국문화 속에서 독특한 의미로 읽히는 상징들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사전이다.

여섯 번째는 이언어, 다언어 참조 사전이다. 출발어를 도착어로 번역하는 것을 돕기 위해 편찬된 사전류로서, 다양한 통번역 사전이 이에 해당한다.

상징 사전은 실제 작품 속에 쓰인 표현을 표제어로 삼은 사전이라는 점에서 문학어 사전과 하나로 묶일 수 있다. 작품 사전, 작가 사전, 문학 용어 사전은 작품을 이해하는 메타데이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언어, 다언어 참조 사전은 사전을 구성하는 언어의 수에 따른 기준으로 달리 구분된다. 이언어, 다언어 참조 사전을 제외하면 모두 문학 작품과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문학 사전'으로 칭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어 사전과 소설어 사전을 아우르는 문학어 사전과, 작품 사전, 작가 사전, 문학 용어 사전, 상징 사전, 기타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이언어 참조 사전으로 나누어서 출간 사전의 전체적인 경향과 특징을 살필 것이다.

3.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참조 사전의 현황과 특징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참조 사전은 국내 간행 사전 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문학으로 분류된 사전 중 학계에서 논의되었거나 사전학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거둔 사전을 대상으로 하였다.[9]

1) 문학어 사전

문학어 사전은 문학 작품에서 실제로 사용된 표현을 선별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고,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는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데에 활용할 참조 사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학어 사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전은 1966년에 발간된 『시조문학사전』이다. 이 사전은 시조 속의 어휘를 풀이해 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 시어 사전과 소설어 사전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 시어 사전으로는 『한국시조대사전』(1992), 『(한국현대시) 시어사전』(1997), 『윤동주 시어 사전』(2005), 『김수영 사전』(2012),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2013), 『백석 시의 물명고』(2015), 『시어 방언 사전』(2015) 등이 출간되었다. 소설어 사전에는 『(한국 현대소설) 소설어사전 개정·증보판』(2000), 『김유정 어휘 사전』(2001), 『이문구 소설어 사전』(2001), 『송기숙 소설어 사전』(2002), 『염상섭 소설어 사전』(2002), 『박완서 소설어 사전』(2003), 『김정한 소설 어휘 사전』(2006), 『최일남 소설어 사전』(2015) 등이 있다.[10] 각 사전의 특징과 표제어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12]

---

9) 도원영 외(2020)에서는 개화기부터 2019년까지 국내 주요 도서관에 소장된 사전 목록을 조사, 정비하여 총 11,000여 종의 사전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도원영 외, 「국내 출간 사전의 동향 분석—연도별 주제별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70, 한민족문화학회, 2020.

10) 배열의 순서는 출간 연도를 따랐다.

11) 도원영 외(2019)에서 제시한 분석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다. 도원영 외, 앞의 책, 2019.

12) 도원영 외(2020)에서는 국내 출간 사전을 학문분야분류에 따라 분류한바, 그에 따르면 문학어 사전은 인문학-한국어와 문학-한국문학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작품 사전, 작가 사전, 문학 용어 사전, 상징 사전 등도 이에 속한다. 도원영 외, 앞의 책, 2020.

〈표 1〉 국내 출간 시어 사전과 소설어 사전

제목	출간연도	분야	특성	표제어 규모[13]
시조문학사전	1966	고시조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창작 향유된 2,376편의 시조를 대상으로 초장의 가나다순으로 작품을 수록하고 각주를 통해 각 작품에 사용된 어휘를 풀어 설명함.	2,376수
한국시조대사전	1992	시조	고려 말부터 1910년 8월에 폐간된 「대한민보」에 수록된 작품까지 약 800여 년 동안의 시조집 93종과 문집 135종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작가, 출전 및 원문에 대한 의미, 출처, 해석을 수록함.	5,492수
(한국현대시) 시어사전	1997	현대시	20세기 시인들의 시어 중 난해한 것을 골라 뜻풀이, 용례를 제시함.	약 12,000
소설어사전 개정·증보판	2000	현대소설	1906년 이인직이 발표한 『血의 淚』로부터 1995년 등단한 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현대소설에서 실제로 사용된 소설 어휘와 문장 용례를 제시함.	15,479
이문구 소설어 사전	2001	이문구의 소설	이문구 문학 작품에서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 관용어, 속담 등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예문과 예문의 출전을 수록함.	약 5,700
송기숙 소설어 사전	2002	송기숙의 소설	송기숙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속담, 비속어 등의 어휘에 대한 풀이와 실제 용례를 제시함.	약 2,500
염상섭 소설어 사전	2002	염상섭의 소설	염상섭의 소설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어휘와 문장의 용례를 찾아 정리하고 부록으로 염상섭 문학에 대한 연구물 서지목록을 첨부. 순수 우리말 어휘나 의성어·의태어·속담 그리고 관용적 표현들을 가능한 모두 표제어로 선정하였으며, 표제어에 따른 문장 용례를 제시함.	약 10,000
박완서 소설어 사전	2003	박완서의 소설	박완서의 소설에서 사용된 어휘에 대한 풀이와 실제 용례를 제시함.	2,701

윤동주 시어 사전	2005	윤동주의 시	윤동주의 시에서 사용된 시어의 뜻풀이와 인용례를 제시함.	8,000
김정한 소설 어휘 사전	2006	김정한의 소설	김정한의 소설 속에 나오는 어휘 중 살려 써야 할 순우리말 어휘를 정리하여 제시함.	약 2,000
한국 근대문학 풍속사전 : 1905-1919	2006	근대 소설	1905년부터 1919년에 걸쳐 발표된 소설 및 서사물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근대 풍속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를 근대 초기 작품에서 선정하여 표제어로 삼고, 용례를 제시함.	약 3,020
현진건 작품 어휘사전	2008	현진건의 소설	현진건의 소설뿐만 아니라 수필과 평론 등에서 사용한 어휘를 망라하여 선정함. 특히 방언이나 고어, 외래어, 외국어, 의성의태어, 관용어 등을 두루 선정하고 작품 속에서 용례를 선별하여 제시함.	약 2,500
번안 소설어 사전	2008	번안 소설	삼대 전문 번안 작가인 조중환, 이상협, 민태원의 소설 11권에 쓰인 주요 낱말들의 표제어와 뜻풀이, 출전, 용례를 제시하고 부록을 통해 세 작가의 약력을 소개하고 주요 작품 목록을 제시함.	4,860
김수영 사전	2012	김수영의 시	김수영의 시 176편을 대상으로 전체 시어에 대한 실제 용례와 뜻풀이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어의 통계 분석', '판본 대조표', '생애 및 연표' 등을 통해 김수영 시어 목록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계량화하여 제시하거나 김수영의 생애와 동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각각 연도별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 김수영의 작품과 생애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제시함.	5,220
타오르는 강 소설어 사전	2014	문순태의 소설 『타오르는 강』	작가 문순태가 자신의 장편소설 『타오르는 강』에 나오는 토박이말들의 뜻풀이와 소설 속 용례를 제시함.	약 2,700
백석 시의 물명고	2015	백석의 시	백석의 시에서 사용된 시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제시함.	3,366

시어 방언 사전	2015	근대 이후의 시	근대 이후의 시 가운데 방언인 시어를 추출, 표제어-품사-의미-예문-출처의 순으로 제시함.	약 2,800
최일남 소설어 사전	2015	최일남의 소설	최일남의 모든 소설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나오는 총 2,400여 항에 달하는 어휘와 속담의 뜻을 상세히 밝히고 거기에 따른 3,200여 개의 예문을 제시함.	약 2,400

위와 같은 사전은 한국문학을 다른 언어로 옮겨야 하는 번역가에게 대상 텍스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어휘와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들 중 문학어에 대한 사전학적 성취를 거둔 『백석 시의 물명고』(2015)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2015년에 발간한 『백석 시의 물명고』는 '백석시어 분류사전'이라는 부제가 그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1935년부터 1948년까지 백석이 발표한 총 98편의 시에서 시어 3,366개를 추출한 뒤, 의미별로 분류하고 표제어로 제시하였다. 특히 분류 목록을 체언, 용언과 수식언, 기타로 나누어 목록화하였고, 각 시어를 분류항목에 따라 풀이와 용례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14] 특히 토속문화와 관련된 표제어의 경우 이미지를 부가하였고 지명의 경우 당대의 지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지도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모순 목록과 빈도수, 분류별 어휘 수를 부록에 제시하였고 백석 시 어휘의 특징에 대해 저자가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문학어 사전은 개별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가가 사용한 특유의 표현을 표제어로 수록하고, 그에 대한 풀이를 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뜻풀이와 함께 해당 작품 안에서 사용되는 실례를 제시하고,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설명도 일부 제시하고 있다.

---

13)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 규모는 사전의 일러두기나 범례, 머리말 등에 제시된 정보에 따라 표시하였다. 일부 사전에서는 표제어의 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직접 사전의 수를 헤아려서 제시하였다.

14) 이 사전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는 사람, 기본생활, 생활환경, 자연환경, 산업생활, 문화생활, 사물, 감각, 식물, 동물 등 총 10개의 대범주 아래 하위 범주를 두어서 백석의 시어를 배열하였다.

이러한 문학어 사전이 가진 한계도 뚜렷하다. 대부분의 사전이 기존 국어 사전의 뜻풀이를 제시하고 용례만 작품 속에서 따오는 방식으로 집필되었다. 그러다 보니 작품 속의 사회문화적 맥락,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해당 표제어 속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설명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용례의 경우 복수의 용례를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용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세밀하게 해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문학어 사전은 작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어휘를 추출, 합당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표제어를 선정하고 작품 속 의미를 작가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여 집필해야 한다. 아울러 작품 속 다양한 용례를 풍부하게 실어주되, 용례별 차이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이 제공되는 것도 필요하다.

2) 작품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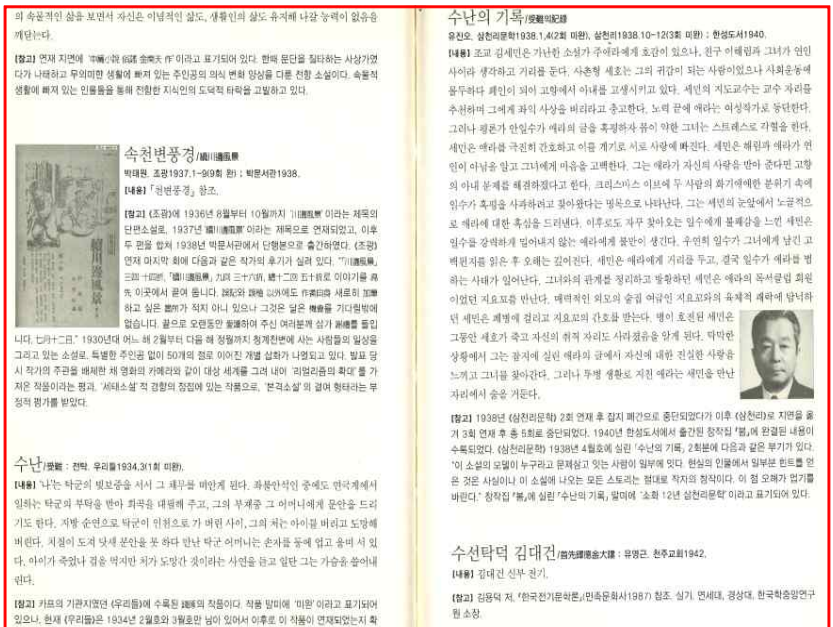
문학 작품 사전은 특정 작가의 작품, 특정 장르의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전을 말한다. 국내에서 출간된 작품에 대한 메타 정보를 다룬 사전은 많지 않다. 두 종의 사전이 확인된다.[15]

〈표 2〉 작품 사전

제목	출간연도	분야	특성	표제어 규모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인물 사전	2012	박경리의 소설 「토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설명하고 그 인물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들을 제시하며 가장 기본적인 명칭으로 가도록 제시함.	약 600
한국현대 장편소설 사전	2013	현대 소설	1917년 이광수의 「무정」 이후 1950년까지 출간된 우리나라 현대 소설에 대해 작품명과 서지, 소설의 줄거리, 해당 작가와 작품이 갖는 다양한 특징을 서술함.	946

15) 도원영 외, 앞의 책, 2019.

2013년에 출간된 『한국현대 장편소설 사전』은 국내에서 출간된 대표적인 작품 사전이다. 이 사전은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거나 연재된 중·장편 소설 946편에 대한 서지 정보와 해설을 겸한 작품사전이다. 특히 작품의 서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요약하였으며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학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의 속물적인 삶을 보면서 자신은 이념적인 삶도, 생활인의 삶도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다.

[참고] 연재 지면에 '中國小說 侶謠 金衆夫 作'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때 문단을 질타하는 사상가였다가 나태하고 무의미한 생활에 빠져 있는 주인공의 의식 변화 양상을 다룬 전향 소설이다. 속물적 생활에 빠져 있는 인물들을 통해 전향한 지식인의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다.

속천변풍경/續川邊風景

박태원. 조광1937.1~9(9회 완) ; 박문서관1938.

[내용] 「천변풍경」 참조.

[참고] (조광)에 1936년 8월부터 10월까지 '川邊風景'이라는 제목의 단편소설로, 1937년 '續川邊風景'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고, 이후 두 편을 합쳐 1938년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조광) 연재 마지막 회에 다음과 같은 작가의 후기가 실려 있다. "'川邊風景' 三四十四回, '續川邊風景' 九四 三十八回, 總十二回 五十餘로 이야기를 鼎先 이곳에서 끝이 둡니다. 說話와 說明 以外에도 作者自身 새로히 加擧하고 싶은 뿐이가 적지 아니 있으나 그것은 닐은 機會를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오랜동안 愛護하여 주신 여러분께 삼가 謝禮를 들입니다. 七月十二日." 1930년대 어느 해 2월부터 다음 해 정월까지 청계천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 소설로, 특별한 주인공 없이 50개의 점로 이어진 개별 삽화가 나열되고 있다. 발표 당시 작가의 주관을 배제한 채 영화의 카메라와 같이 대상 세계를 그려 내어 '리얼리즘의 확대'를 가져온 작품이라는 평과, '세태소설'적 경향의 정점에 있는 작품으로, '본격소설'의 결여 형태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수난/受難 : 전탁. 우리들1934.3(1회 미완).

[내용] '나'는 탁군의 빚보증을 서서 그 채무를 떠안게 된다. 좌불안석인 중에도 연극계에서 일하는 탁군의 부탁을 받아 희곡을 대필해 주고, 그의 부재중 그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기도 한다. 지방 순연으로 탁군이 인천으로 가 버린 사이, 그의 처는 아이를 버리고 도망해 버린다. 치절이 도저 닷새 문안을 못 하다 만난 탁군 어머니는 손자를 등에 업고 울며 서 있다. 아이가 죽었나 겸을 먹지만 처가 도망간 것이라는 사연을 듣고 일단 그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참고] 카프의 기관지였던 (우리들)에 수록된 謝禮의 작품이다. 작품 말미에 '미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들)은 1934년 2월호와 3월호만 남아 있어서 이후로 이 작품이 연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빚보증을 둘러싼 당대 지식인의 불우한 삶을 섬세한 심리묘사를 통해 그려 내고 있다.

수난의 기록/受難의記錄

유진오. 삼천리문학1938.1,4(2회 미완), 삼천리1938.10~12(3회 미완) ; 한성도서1940.

[내용] 조교 김세민은 가난한 소설가 주에라에게 호감이 있으나, 친구 이혜림과 그녀가 연인 사이라 생각하고 거리를 둔다. 사촌형 세호는 그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으나 사회운동에 몰두하다 폐인이 되어 고향에서 아내를 고생시키고 있다. 세민의 지도교수는 교수 자리를 추천하며 그에게 좌익 사상을 버리라고 충고한다. 노력 끝에 애라는 여성작가로 등단한다. 그러나 평론가 안일수가 애라의 글을 혹평하자 몸이 약한 그녀는 스트레스로 각혈을 한다. 세민은 애라를 극진히 간호하고 이를 계기로 서로 사랑에 빠진다. 세민은 해림과 애라가 연인이 아님을 알고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한다. 그는 애라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 준다면 고향의 아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일수가 혹평을 사과하려고 찾아왔다는 명목으로 나타난다. 그는 세민의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애라에 대한 흑심을 드러낸다. 이후로도 자꾸 찾아오는 일수에게 불쾌감을 느낀 세민은 일수를 강력하게 밀어내지 않는 애라에게 불만이 생긴다. 우연히 일수가 그녀에게 남긴 고백편지를 읽은 후 오해는 깊어진다. 세민은 애라에게 거리를 두고, 결국 일수가 애라를 범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방황하던 세민은 애라의 목서클럽 회원이었던 지요꼬를 만난다. 매력적인 외모의 술집 여급인 지요꼬와의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던 세민은 폐병에 걸리고 지요꼬의 간호를 받는다. 병이 호전된 세민은 그동안 세호가 죽고 자신의 취직 자리도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막막한 상황에서 그는 잡지에 실린 애라의 글에서 자신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그녀를 찾아간다. 그러나 두병 생활로 지친 애라는 세민을 만난 자리에서 술을 거둔다.

[참고] 1938년 (삼천리문학) 2회 연재 후 잡지 폐간으로 중단되었다가 이후 (삼천리)로 지면을 옮겨 3회 연재 후 총 5회로 중단되었다. 1940년 한성도서에서 출간된 창작집 『봄』에 완결된 내용이 수록되었다. (삼천리문학) 1938년 4월호에 실린 「수난의 기록」 2회분에 다음과 같은 부기가 있다. "이 소설의 모델이 누구라고 문제삼고 잇는 사람이 일부에 잇다. 현실의 인물에서 일부분 힌트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절대로 작자의 창작이다. 이 점 오해가 업기를 바란다." 창작집 『봄』에 실린 「수난의 기록」 말미에 '소화 12년 삼천리문학'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수선탁덕 김대건/首先鐸德金大建 : 유영근. 천주교회1942.

[내용] 김대건 신부 전기.

[참고] 김용덕 저, 『한국전기문학론』(민족문화사1987) 참조. 실기, 연세대, 경상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그림 1〉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박경리의 『토지』는 워낙 방대한 규모의 대하소설이다 보니 무려 600명의 인물이 작품 속에 등장한다. 작품 속 배경도 1897년부터 1945년에 이르며 등장인물의 명칭도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를 정리한 사전이 바로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인물사전』이다. 이 사전은 소설에 대한 메타적 해설의 일종으로, 작품 사전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3) 작가 사전

한국문학을 이끌어온 다양한 장르의 작가를 표제어로 수록하고 해설을 단 사전이 바로 작가 사전이다. 국내에서는 문학 작품을 쓴 작가만을 수록한 사전은 아직 발간된 바 없다. 다만, 1995년에 출간된『국어국문학자료사전』에 주요 작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사전은 국어국문학 연구 대상을 모두 표제어로 삼은바, 작가뿐만 아니라 작품, 비평 용어를 총망라하여 9,800여 개를 수록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있다. 작가를 표제어로 삼았다는 점에서 작가 사전으로 구분하였지만, 실제 한국문학의 연구 대상과 메타 술어를 통합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16)



〈그림 2〉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6)『두산동아대백과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브리태니커백과사전』등 주요 백과사전에도 한국문학의 작가, 작품을 표제어로 등재하고 자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4) 문학 용어 사전

문학 용어에 대해 다룬 사전은 전문용어의 해설을 다룬 사전으로 상당한 수가 간행되었다. 1976년에 발간된『문학비평용어사전』이래 2018년의『인문학 용어 대사전』에 이르기까지 문학 비평, 나아가 문화 비평을 위한 사전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었다. 이 사전들은 공통적으로 문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으며 일부 사전에서는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사전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내 출간 문학 용어 사전

제목	출간 연도	분야	특성	표제어 규모
문예대사전	1962	문예 전반	세계 각국의 소설가, 시인, 극작가, 평론가, 사상가, 문예작품, 문학사와 문예 용어 등을 대, 중, 소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한 문예전문사전.	7,500
세계문학대사전	1972	세계문학 일반	세계문학 연구 및 감상용 사전. 1부에 인명, 작품명, 2부에 문학용어, 연표 등이 수록됨.	4,500 (1부)
문학비평용어사전	1976	문학 비평	국내 비평용어사전의 효시. 이상섭 교수가 영미권 비평용어사전을 수용하면서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비평적 인식을 넓힌 사전.	176
문학비평용어사전	1976	문학 비평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가 Roger Fowler의 A Dictionary of Modern Critical Terms를 번역하고 일부 항목을 추가함.	208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1981	문학 비평	에이브럽즈의『문학용어해설집』을 번역하고 누락된 주요 용어를 참조하여 편찬함.	약 600
소설학사전	1992	소설학 용어	소설학 용어를 선별하고 해설을 제시한 사전. 특히 한국문학에서 논의된 소설 용어를 수록함.	약 260
현대문학·문화비평 용어사전	1999	문학 및 문화 비평 용어	현대의 문학비평과 문화비평 용어를 자모순으로 수록, 설명함. 특히 서양어-한국어 일람표를 제시하였으며 참고 서지의 국내 번역본을 밝혀 놓았음.	약 500
문학용어사전	2001	문학 용어 전반	우리나라와 세계 문학에서 생성된 문학 용어를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작가와 작품, 문학적 사건, 단체·문학 잡지·신문 등을 수록함. 2001년 상반기까지	약 8,300

			활동한 작가,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함.	
100년의 문학용어사전	2008	문학 비평 용어	근대 100년의 문학용어를 해설한 사전. 북한 및 해외에서 한국어로 발표한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음.	약 700
문학비평 용어사전	2009	문학 비평 용어	문학비평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선정하여 수록함. 문학 비평과 관련된 인문학 용어 전반을 수록하고 해설과 예문, 참조 용어와 참고 문헌을 제시함.	약 2,000
인문학 용어 대사전	2018	문학 비평 용어	「문학비평 용어사전」의 증보개정판. 100여 개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표제어를 수정 보완함.	2100

위 사전 중『문예대사전』,『100년의 문학용어사전』,『문학비평 용어사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문예대사전』은 해방과 전후의 황폐한 환경에서 문학예술에 초점을 두어 편찬된 사전으로,세계 각국의 문학계와 사상계의 인물, 문예 작품, 문학사와 문학상, 문학 용어와 개념 등을 대·중·소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록했다. 전체 7,500여 항목 가운데 한국문학 관련 1,600항목을 넣었으며, 주요 항목에는 필자를 밝혔다. 장경식은 1960년대 초 한국의 문학 연구자 및 독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학과 문예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17]

『100년의 문학용어 사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편찬한 사전으로, 근대 문학 용어 사전이면서 통일 문학 용어 사전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사전의 성격을 한국문학 현장에서 만나는 용어, 문단에서 활동하거나 문학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사전, 용어에 대한 뜻풀이의 주체를 한국 작가들의 입장에 두는 사전, 문학 현장의 범주를 남북 해외를 포괄하는 모국어 문학권 전체로 확장한 사전으로 규정하였다. 표제어의 범위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출판과 문화 일반의 용어, 남북한 문학 용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문학 용례까지 수용하였으며 아동문학, 고전문학과 최신 현대 문학 용어 700여 개를 수록하고 있다. 표제어에는 원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언어적 풀

17) 장경식,「〈문예대사전〉 해제」,『사전편찬정보통합DB 구축 보고서』, 최호철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이 다음에 자세한 용어 해설을 보이고 있다. 필요한 경우 참고 문헌을 마지막에 부가하였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에서 편찬한 『문학비평 용어사전』은 문학 용어, 특히 비평에서 다루어지는 기본 개념과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사전이며 전문 가용 사전이다. 문학 비평에 대한 입문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인 내용까지 수록하여 학습 사전이면서 학술용 사전의 특성을 아우르고 있다. 모든 문학 용어에서 한국문학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용어 해설에 필요한 예문도 한국문학에서 인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표제어마다 개념, 유래, 용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학설, 특수한 학설과 최신의 학설을 부가하고 있다. 해설 마지막에는 관련어를 제시하였고 참고 문헌도 부가하였다.

5) 상징 사전

문학 번역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축자적 의미가 아닌 다양한 내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 표현을 번역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전이 상징 사전이다. 주로 한국문화의 고유성, 개별성을 설명하는 데 목표를 둔 사전이 1990년대에 출간되었다. 1992년에 발간된 『한국문화상징사전』은 한국 고유의 상징을 주되게 다루고 있다.[18] 이 사전은 한국적인 상징성을 띠는 항목을 382개 선정하고 매 항목을 9개 층위(어원, 신화, 무속・민속, 풍습, 종교, 동양 문화, 역사・문화, 현대・서양, 도상)으로 세분하여 자세히 해설하였다.

18) 일반 언어 사전이나 백과사전에도 비유와 상징을 뜻하는 표제어가 들어 있다. 하지만 상징의 외연과 내포를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상징 사전은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데 참조가 되는 주요한 특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322 보 부

백의(白衣)

⇨ 가을·태양·흰색

어 원

주세어로는 '힌 옷, 흰 옷'이다. '히다, 희다(白)'는 '히(太陽, 昊)'와 어원이 같다. 새로오는 붉다(赤)와 함께 붉다(明)계, 즉 양계어(陽系語)에 속한다. 우리 민족이 흰빛을 숭상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 보이는데, 이는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백부터 우리는 흰 옷(白衣)을 숭상했기 때문에 백의 민족(白衣民族)이라고 하였다. 이는 태양의 성격(色像)을 이상으로 삼아 흰빛을 생활 속에 살린 데 연유한다. 같은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진 일본(日本)은 붉은 태양을 그려 국기로 삼고, 국호도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에서 '日本(hinomoto-no-kuni, nippon, nihon)'이라고 했다. <후쿠베>

신 화

(하늘나라 사람, 하늘, 땅) 이능화의 '조선 무속고'에, "세상에 천하기를 지시한 고원천사(古圓天師)에 범우화성이 있었는데, 배우 도령(道仁)이 농았다. 이는 낮 산골짜기를 바라보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불어 있었다. 그 흘러온 물줄기를 찾아 천황봉(天王峰)에 이르니, 기골이 장대한 백의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성모천부(聖母天王)이라 하고, 인간 세상에 귀양을 왔다고 하면서, 그대와 인연이 있으므로 수술(水精)을 적용하여 스스로 증세하였다고 하였다. 마침내 부부가 되어 딸 여럿을 낳아, 자손이 많이 퍼졌다. 발들에게 두술(斗術)을 가르쳤다. 큰 방울과 울긋불긋한 부채로 춤을 추고, 아이타불과 법우화상을 부르면서 방광곡과 무업(巫業)을 행하였다. 이 때문에, 근무당은 반드시 지리산에 가 성모천왕에게 기도해 접신(接神)한다."고 했다.

그런데 성모사(聖母祠)에 모셔진 무조(巫祖) 성모천왕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는 '나무곳과 선녀' 설화에서 선녀의 날개옷과 같은 백학으로 하늘나라 사람임을 표상한다. 또, 흰색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제스로, 물질의 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무당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관료적 권위적인 복제를 모방하여 다양한 색깔로 된 옷을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복조>

무속·민속

[순결] 예전의 전라도 당골들은 옛날궁을 할 때, 대개 흰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이 흰 옷은 무조신인 지리산 성모천왕을 대신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옷이므로 절배와 순수함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상징 것이 생이지 아니한 흰 옷은 양속의 극한 천도을 필 때에 입는다.

또, 첫심굿 중에서 서씩굿을 할 때만은 흰 장삼을 철릭하게 걸치고 머리에 한지(韓紙)로 된 고깔을 쓰는데, 이는 제석(帝釋)의 불교적 신임을 받아는 것이라고 한다.

[영원 불멸]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에 입히는 수의는 흰 옷 또는 삼베이다. 흰색은 밝음과 같이 많음을 의미하므로 영원 불멸을 상징한다. <홍복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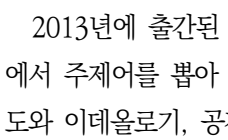
풍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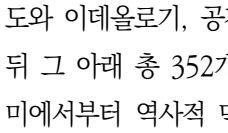
[조상 숭배, 조상 영혼] 우리 나라에서는 상(喪)을 당하면, 상주는 물론이고 전족도 흰 옷(素服)을 입었다. 사람의 죽음을 흰색으로 나타낸 데에 말미암는다. 이는 태양을 숭배했던 시절 의식이 조상 숭배로 전이되어 표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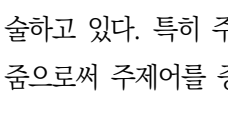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중습은 부모님 외에, 근(近)·사(祠)·부(父) 일계라는 유교적 친년에서, 국상을 당하면 백성들은 3년간 흰 옷을 입고 흰 계립을 착용하였다. 또, 스승상을 당한 제자들도 3년간 흰 옷을 입었다. 백의는 조상의 영혼 또는 혼백이 깃들인 것으로 생각하여 제청(祭廳) 한쪽에 걸어 두고 생시와 같이 손님을 뵙다.

마천항의 백사 풍경


하늘나라 사람임을 표상하는 흰 옷


장례에 상주를 상징하는 흰 옷


조상의 혼백이 깃들임 백의


06 음림적 기력의 백의의 군무성.

백의 323

종 교

[유교: 결결] 옛날에 일식이나 월식 때, 임금께 문무 백관은 벌할 있는 옷을 벗고, 하얀 소복 차림을 하였다. 이는 성계계(聖體界)의 상징과에 대해 하늘가 공경이나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신앙처럼 행해졌다. 또, 제사 때에 흰 옷을 입고, 흰 띠, 흰 술, 흰 밥을 쓰는 것도 제천 의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상복과 같은 흰 옷을 입게 되었다. <송혜숙>

[경원] 우리 민족은 예부터 태양에 대한 경모의 예를 극진히 해 왔다. 최남선은 '조선상식 문답'에서 "우리 민족은 옛날에 태양을 하느님으로 알고, 자기네들은 이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태양의 광명(光明)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빛을 신성하게 알아서 흰 옷을 자랑삼아 입었다."고 하였다.

또, 흰색은 신성성(神聖性) 또는 종교 가치의 예이었다. 즉, 고대의 세계복이나 승도복(僧道服)은 더욱 흰색을 쓴 것이 세계 공통적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조상 숭배가 뿌리 깊은 데서는 태양의 광명 표상인 흰색은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관위에 편된이 있는 흰 옷은 오늘날까지 습속되고 있다.

[순수]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백의(白衣)는 고결, 결백, 순수, 성결(聖潔)을 상징한다. 더러움을 타기 쉬운 흰 옷은 그만큼 악으로부터 먼 자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상징한다. <홍복조>

동양 문화

[중국: 서쪽, 가을, 죽음, 재앙] 고대의 복제 중에는 오행설에 의한 것이 나타난다. 예기(禮記) 월령에 의하면, 천자가 제사를 지낼 때, 맹춘(孟春: 1월)에는 푸른 기를 달고 푸른 옷을 입고 푸른 구슬을 달고 지내며, 맹하(孟夏: 4월)에는 붉은 기를 달고 붉은 옷을 입고 붉은 구슬을 달고 지내며, 계하(季夏: 6월)에는 노란 기를 달고 노란 옷을 입고 노란 구슬을 달고 지내며, 맹추(孟秋: 7월)에는 흰 기를 달고 흰 옷을 입고 흰 구슬을 달고 지내며, 맹동(孟冬: 10월)에는 검은 기를 달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구슬을 달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또, 방위색에서의 흰색은 서쪽색으로, 죽음과 재앙을 표장하고, 전장 등에서의 흰 옷은 특별한 의식에 착용된다. 또, 도가의 신선술에는 흰 옷으로써 신선도를 표상한다.

[일본: 순결, 신성] 흰색은 순결, 청정, 소박, 결백, 신성 등을 상징한다. 흰색이 신앙의 색으로서도 쓰여, 특별히 신사(神社)의 색으로서 세부터 존중되어 왔다. 그래서 궁존자와 같은 깊사에 청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동시에, 장례식과 같은 흉사에도 죽음의 청정한 표현으로서 사용된다. 한편, 민속학자 야나기다(柳田國男)는 흰빛은 이상색과(異常色彩)이고 '고약한 색'이라 하여 신세의(神衣)와 상복 외에는 입지 않았다고 한다. <후쿠조>

역사·문학

[한민족] 중국의 삼국지에는 부여의 풍속을 전하면서, "흰 옷 흰 옷을 숭상한다."라였고, '주서(周書)'에는 "신라 사람은 옷의 색깔로 흰 것을 숭상한다."고 하였으며, '송사(宋史)'에는 고려 시신 파견이 "중국의 사(士)는 흰 옷을 숭상한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명나라 유월의 '조선부'에도 "옷은 모두 재래랗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흰 옷을 좋아한 것은 백와 장소를 초월한 것이었다. 그래서 백의는 한민족(韓民族) 자체를 상징하게 되었다.

고려 중엽 이후로 흰 옷을 금한 일이 여러 번 있었으나, 탕설과 귀족, 사대부 사이에 일시적 효과가 있었을 뿐, 전국적, 전면적인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일반 민중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리나 개화의 물결을 타고 활동상 제도을 입지않을 수 없게 되자, 동정만을 흰 것으로 하여 입고 다녔다. <후쿠베>

[민족애, 순결, 광휘] 상국지 위서(魏書)에는 부여족 사람들을 연 급 하 면 서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는다."라고 하였다.

출상(出喪) 전남 지방

장삼 고려 때부터 백동 변 소장

신라인 상징을 지닌 문무관 대장의 공명을 표상

흰색은 기술과 사람의 복합

연광칠년회도(延光七年會圖) 유주도 무덤) 유주도 그림.

〈그림 3〉 한국문화상징사전

2013년에 출간된『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사전』은 여성 작가의 문학 작품에서 주제어를 뽑아 문학적 의미와 맥락을 기술하고 있다. 인간관계, 몸, 제도와 이데올로기, 공간과 사물, 자연 등 5개의 대범주 아래 중범주를 설정한 뒤 그 아래 총 352개의 소범주를 표제어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부터 역사적 맥락, 작품 속에서 쓰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주제어가 가진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예시를 통해 제시해 줌으로써 주제어를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6) 이언어/다언어 참조 사전

(1) 통번역 사전

국내에는 통번역 사전으로 명명된 사전이 여러 종 출간된 바 있다.『이진영의 통역번역 기초사전』,『프랑스어 통역번역사전』,『일본어 통번역 사전』,

『김혜림의 중국어 통역・번역사전』 등이다. 이들 사전은 통번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용자와 해당 외국어 학습자에게 주요 용어에 대한 대역어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진영의 통역번역 기초사전』, 『프랑스어 통역번역사전』, 김혜림의 중국어 통역・번역사전』은 모두 한국어를 표제어로 하여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대역어를 제시하는 사전이다. 반면 『일본어 통번역 사전』만 일본어를 출발어로, 한국어를 도착어로 하고 있다.[19]

〈표 4〉 국내 출간 통번역 사전

제목	출간 연도	분야	특성	표제어 규모
이진영의 통역번역 기초사전 (Korean-English Terminology for Beginners)	2004	한-영 전문용어	한국어 용어에 대한 영어 대응 표현을 제시한 사전. 사회, 문화, 언론・광고, 스포츠 레저 등 총 24개 분야로 나누고 다시 소분류를 두어 표제어를 배열함. 각 표제어에 대해 영어 인용례와 번역문을 모두 제시함. 용어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부연하고 있음.	약 5,400
김혜림의 중국어 통역・번역사전 (Korean-Chinese Terminology)	2006	한-중 전문용어	한국어 전문용어에 대해 중국어 대응 표현을 제시함. 사회, 문화, 언론, 스포츠 레저, 교육 등 24개 분야와 하위 분야를 나누어 표제어를 배열함. 분류는 『이진영의 통역번역 기초사전』을 대부분 수용함. 주표제어 아래 관련어를 부표제어로 배열하여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고 있음. 어려운 용어의 경우 부연 설명을 추가하기도 함.	약 13,000
일본어 통번역 사전 (Japanese-Korean Terminology for Beginners)	2007	일-한 전문용어	일본어 전문용어에 대해 한국어 대응 표현을 제시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벤트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다시 하위 분야에 표제어를 배열함. 어려운 용어에는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빈도 관용 표현은 분야별로 제시하여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	약 5,000
프랑스어 통역번역 사전	2016	한-불 전문용어	한국어 전문용어에 대한 프랑스어 대역 어휘집의 성격. 경제, 정치, 행정, 환경, 에너지, 법률	약 7,500

19) 도원영 외, 앞의 책, 2019.

(Dictionnanire de Teminologie Coreen-Francais)			등 총 17개 분야로 나눠 표제어를 배열함. 어려운 용어의 경우 한국어로 뜻풀이를 제시하였고 일부 고빈도 구의 경우 용례도 제시하고 있음.	

통번역 사전류는 주로 시사 용어를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4종의 사전 모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표제어를 분류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거시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번역가들도 참고할 만한 한국의 최근 시사 용어가 두루 실려 있다. 그러나 머리말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어 통번역 대학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어서 문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거나 표제어의 사용 맥락이나 화용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2) 번역어 용례 사전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은 2005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한 온라인 사전이다.[20] 200권의 한국학 자료에서 추출한 7,000개의 용어를 선별하여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표제어에 대해서는 한글명/한자명을 제시하고 '분야/유형/시대'와 같은 분류 정보를 준 다음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매큔-라이샤워 표기를 함께 제시하였다. 간략한 한글 정의를 한 뒤 영어 대응 표현을 제시하고 해당 의미를 잘 보여 주는 영문 용례를 출전과 함께 보이고 있다. 한국학 용어의 다양한 영문 용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학 번역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20)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의 온라인 주소는 http://digerati.aks.ac.kr:94/(2021.03.31. 검색)이다.



〈그림 4〉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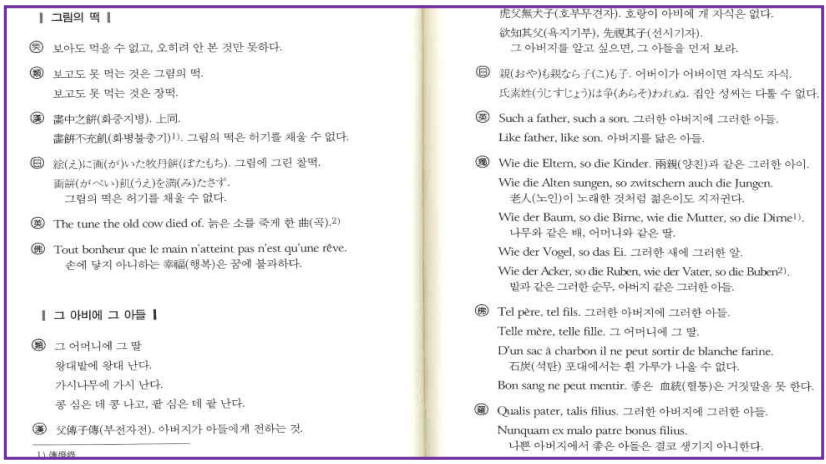
다만, 표제어 수가 7천 개 정도로 한국학의 규모와 범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영문 대역 표현과 용례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번역학에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한 논의로는 박현주(2016)[21]가 있다. 박현주는 번역가를 위한 전문용어 번역 사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문화재 한영 번역 사전의 원형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고어 및 한자어로 이루어진 문화재 용어를 번역 상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편찬된 전문용어사전, 즉 '번역 사전'의 개발을 주장한 바 있다.

(3) 다언어 사전

「동서속담사전」(2007)의 경우 한국 속담에 대한 6개 언어 대응 표현 사전이다. 같은 뜻을 가진 각국의 속담을 한국어-한문-일본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라틴어의 순으로 제시하고, 일부는 그 뜻풀이와 유사한 속담, 대립되는 속담 또한 제시하고 있다. 속담이 가진 상징성은 타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동의성을 가지기 어렵다. 대응 표현을 제시할 때 뉘앙스의 차이나

21) 박현주, 「문화재 분야 한영 번역용 온라인 전문용어사전 구축 방안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16.

사용역의 차이를 기술해 주는 방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 그림의 떡 ‖

㊀ 보아도 먹을 수 없고, 오히려 안 본 것만 못하다.

㊁ 보고도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
보고도 못 먹는 것은 장떡.

㊂ 畵中之餠(화중지병). 上同.
畵餠不充飢(화병불충기)[1]. 그림의 떡은 허기를 채울 수 없다.

㊃ 絵(え)に画(か)いた牧月餅(ぼたもち). 그림에 그린 꿀떡.
画餠(がべい)飢(うえ)を満(み)たさず.
그림의 떡은 허기를 채울 수 없다.

㊄ The tune the old cow died of. 늙은 소를 죽게 한 曲(곡).[2]

㊅ Tout bonheur que le main n'atteint pas n'est qu'une rêve.
손에 닿지 아니하는 幸福(행복)은 꿈에 불과하다.

‖ 그 아비에 그 아들 ‖

㊆ 그 어머니에 그 딸
왕대밭에 왕대 난다.
가시나무에 가시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㊇ 父傳子傳(부전자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것.

虎父無犬子(호부무견자). 호랑이 아비에 개 자식은 없다.
欲知其父(욕지기부), 先視其子(선시기자).
그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그 아들을 먼저 보라.

㊈ 親(おや)も親なら子(こ)も子. 어버이가 어버이면 자식도 자식.
氏素姓(うじすじょう)は爭(あらそ)われぬ. 집안 성씨는 다툴 수 없다.

㊉ Such a father, such a son. 그러한 아버지에 그러한 아들.
Like father, like son. 아버지를 닮은 아들.

㊊ Wie die Eltern, so die Kinder. 兩親(양친)과 같은 그러한 아이.
Wie die Alten sungen, so zwitschern auch die Jungen.
老人(노인)이 노래한 것처럼 젊은이도 지저귄다.
Wie der Baum, so die Birne, wie die Mutter, so die Dirne[1].
나무와 같은 배, 어머니와 같은 딸.
Wie der Vogel, so das Ei. 그러한 새에 그러한 알.
Wie der Acker, so die Ruben, wie der Vater, so die Buben[2].
밭과 같은 그러한 순무, 아버지 같은 그러한 아들.

㊋ Tel père, tel fils. 그러한 아버지에 그러한 아들.
Telle mère, telle fille. 그 어머니에 그 딸.
D'un sac à charbon il ne peut sortir de blanche farine.
石炭(석탄) 포대에서는 흰 가루가 나올 수 없다.
Bon sang ne peut mentir. 좋은 血統(혈통)은 거짓말을 못 한다.

㊌ Qualis pater, talis filius. 그러한 아버지에 그러한 아들.
Nunquam ex malo patre bonus filius.
나쁜 아버지에서 좋은 아들은 결코 생기지 아니한다.

1) 傳爲語

〈그림 5〉「동서속담사전」

4. 맺음말

앞에서 한국문학 관련 사전, 즉 문학어 사전, 작품 사전, 작가 사전, 문학 용어 사전, 상징 사전, 기타 이언어/다언어 참조 사전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출간 경향과 사전적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앞으로 기획하고 편찬해야 할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사전은 단순히 문학 작품에 사용된 표현에 대한 언어별 대역어와 뜻풀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과 그 표현이 사용된 상황과 맥락에 관한 정보가 폭넓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웹 서비스 중인 범용 사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문학 고유의 지식정보를 담는 사전이 필요하다.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디지털 자원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22] 앞서 살핀 대부분의 사전들은 웹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기획, 편찬해야 할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사전

22) 도원영은 사전 편찬 환경의 변화, 사전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의 사전은 디지털 자원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도원영,「새로운 사전의 필요성과 가능성」,『디지털 시대의 사전』, 한국문화사, 2019.

은 사전의 목적과 규모, 사전의 구조와 기술적 방법론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외 이용자의 사용 편이성을 고려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웹상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이 연구는 사전학적 입장에서 한국문학 번역가에게 유의미한 특수 사전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폈다. 각 사전이 가진 특징과 성과를 한국문학의 관점에서 다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현대시 연구회, 『김수영 사전』, 서정시학, 2012.
고형진, 『백석 시의 물명고』, 고려대 출판부, 2015.
곽원석, 『염상섭 소설어 사전』, 고려대 출판부, 2002.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5.
김미현 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 보고사, 2013.
김봉모, 『김정한 소설 어휘 사전』, 세종출판사, 2006.
김윤식,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76.
김윤식・최동호, 『소설어사전 개정・증보판』, 고려대 출판부, 2000.
김재홍, 『(한국현대시) 시어사전』, 고려대 출판부, 1997.
김현 외,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digerati.aks.ac.kr, 2021.
김혜림, 『김혜림의 중국어 통역・번역사전』, 이화여대 출판부, 2006.
문순태, 『타오르는 강 소설어 사전』, 소명출판, 2014.
문원각, 『세계문학대사전』, 문원각, 1972.
민충환, 『박완서 소설어 사전』, 백산출판사, 2003.
_____, 『송기숙 소설어 사전』, 보고사, 2002.
_____, 『이문구 소설어 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_____, 『최일남 소설어 사전』, 조율, 2015.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박진영, 『번안 소설어 사전』, 현실문화, 2008.
변재옥, 『동서속담사전』, 영남대 출판부, 2007.
송하춘, 『한국현대 장편소설 사전』, 고려대 출판부, 2013.
신희천, 『문학용어사전』, 청어, 2001.
우기흥, 『일본어 통번역 사전』, 넥서스, 2007.
이경훈, 『한국 근대문학 풍속사전 : 1905-1919』, 태학사, 2006.
이명섭,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을유문화사, 1981.
이상규, 『시어 방언 사전』, 역락, 2015.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1976.
_____,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2009.
이상진,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인물 사전』, 마로니에북스, 2012.
이승환, 『프랑스어 통역번역 사전』, 문예림, 2016.
이재춘, 『현진건 작품 어휘사전』, 북랜드, 2008.
정병욱,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66.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현대문학.문화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조재수, 『윤동주 시어 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학원사, 『문예대사전』, 학원사, 196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인문학 용어 대사전』, 국학자료원, 201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0년의 문학용어사전』, 아시아, 2008.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김운찬, 「번역과 백과사전」, 『이탈리아어문학』 16,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5, 1-21면.
김윤진, 「문학 번역의 방법론—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문학 번역의 이해』, 북스토리, 2007, 11-26면.
김종환, 「네이버 사전의 신규 편찬 및 개정 방향성」, 한국사전학회 제30차 동계 학술대회 발표집, 2017년 2월 25일, 79-89면.
_____, 「포털 이용자의 사전 이용 현황_네이버 사례 분석」, 한국사전학회 제32차 동계 학술대회 발표집, 2018년 2월 23일, 3-17면.
도원영,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과 가능성」, 『디지털 시대의 사전』, 한국문화사, 2019, 141-167면.
도원영 외, 『한국문학 번역사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학번역원, 2019.
_____, 「국내 출간 사전의 동향 분석—연도별 주제별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70, 한민족문화학회, 2020, 265-302면.
박현주, 『문화재 분야 한영 번역용 온라인 전문용어사전 구축 방안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6.
배연경, 「해외 온라인 사전의 현재와 미래」, 한국사전학회 제30차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2017년 2월 25일, 63-75면.
송승철, 「비평용어사전 편찬과 번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과 밖』 10, 영미문학연구회, 2001, 89-113면.
안인경, 「독문학 용어 번역과 용어 사전」, 『번역연구』 3, 한독문학번역연구소, 1995, 55-69면.
장경식, 「〈문예대사전〉 해제」, 『사전편찬정보 통합 DB 구축 보고서』, 최호철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Abstract】

Special Dictionary Status and Tasks for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Doh, Won-Young*

As the world's interest in Korea and Korean culture is increasing,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is emerging as a major task. Although a number of Korean literature is entering the overseas market, the high quality works of Korean literature are still not sufficiently supplied to readers around the world. As much as training translators and supporting translation activities, it is important to expand tools and resources that translators can utilize. However, lexicography has not been very interested in this par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dictionary resources that Korean literature translators can use. Chapter 2 summarizes the lexic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dictionaries. In Chapter 3, reference dictionaries for literary translation are divided into novel language dictionary, poetry dictionary, literary dictionary, symbolic dictionary, and bilingual/multilingual reference dictionary, and the current status of publication,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dictionary are analyzed. Finally, I summarized the matters to be directed in the pre-planning and compilation process for futur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Keyword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Special Dictionary, Dictionary for Literature Translation, Novel Language Dictionary, Poetry Dictionary, Literature Terminology Dictionary, Symbolic Dictionary.

접수일: 2021.03.31.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12.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